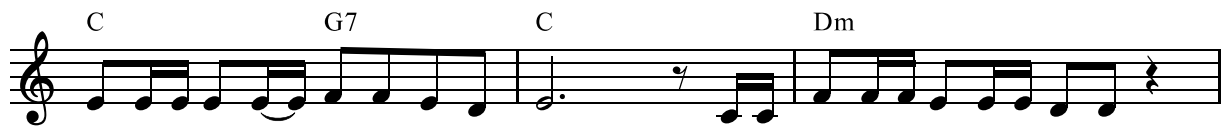


살아온 이야기

구전노동가요
음원 <예울림 1집>



내가 어렸을 적 엄마가 말했어 요 서울에 가서 - 돈 벌 어 갖고
와서 처음 다니던 공 - 장 은 너 무나 힘 들고 고 달 - 폰 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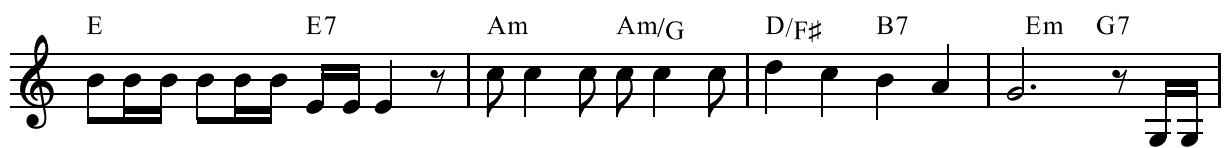
시골에와서 - 시집가라고 나는 서울이너 무나 좋아
한 달 - 월 급은 삼 만 오 천 원 나는 서울이너 무나 싫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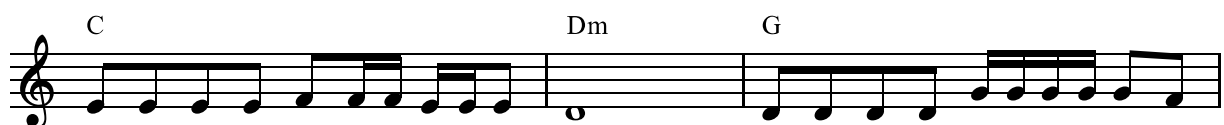
중학교 졸업 - 하 - 고 서울로 왔 답 니 다 서울
공장이너 무나 무서워 엄 마 에 게



돌아갔어요 엄 마 - 엄 마 서울은너 무나 싫어



공장은너 무나 무서워 다시 는 공 장 에 안 갈 거 라 고 집에



와서 있 다 오 빠와 싸웠어 요 그 런 후 에 가정부로가 서

